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한 해를 건너뛰고 2021 년을 맞이 하다
- ◇ (초점)-한은, 통안채 3 년물 신설 고심..최대 걸림돌은 '시장의 이해'
- ◇ (초점)-빅피겨 넘어 1000 원 향하는 달러/원의 하락 행진..배경과 전망
- ◇ (칼럼)-전방위 압박 가하는 외환당국, 득일까 실일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19 신속진단 기법이 사용되면서 요양소에 방문이 허용된 가운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부인에게 남편이 3월 이후 처음으로 키스를 하고 있다. (로이터/케빈 콕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082.1	1.9%	6.9%	-3.5%	유로	1.2120	1.3%	8.1%	-2.3%
100엔 대비	1,040.4	1.9%	2.1%	-4.4%	엔	104.14	0.0%	4.3%	0.9%
유로 대비	1,313.5	0.6%	-1.5%	-1.3%	위안	6.5418	0.5%	6.4%	-1.3%
위안 대비	165.89	1.2%	-0.1%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30,218.26	1.0%	5.9%	22.3%
코스피	2,731.45	3.7%	24.3%	7.7%	나스닥	12,464.23	2.1%	38.9%	35.2%
코스닥	913.76	3.2%	36.4%	-0.9%	S&P500	3,699.12	1.7%	14.5%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641.79	1.0%	16.1%	15.8%
국고채 3Y	0.966%	-1.3bp	-39.4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323%	-0.1bp	-15.7bp	-40.4bp	미국채 2Y	0.153%	-0.2bp	-140.8bp	-93.7bp
국고채10Y	1.655%	1.4bp	-2.8bp	-26.5bp	미국채 10Y	0.973%	13.0bp	-93.8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6.26	1.6%	-24.2%	34.5%	한국 5Y	19.8bp	-0.9bp	-1.2bp	-17.0bp
금(현물)	1,837.61	2.8%	21.1%	18.3%	일본 5Y	14.2bp	-0.9bp	-3.5bp	-4.0bp
TR상품지수	2,673.26	-1.9%	7.5%	4.8%	중국 5Y	28.0bp	-1.5bp	-2.6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2월 7일(월)>

- 금감원,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8:45)
- 기재부, 부총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10:00)
- KDI 경제동향(12월호)(12:00)

<8일(화)>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 기재부, 2021년 예산배정계획(09: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00)
-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9일(수)>

- 기재부, 2차관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10:00)
- 한은, 11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10일(목)>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11일(금)>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12:00)
- 기재부, 2021년 국고채 발행 계획(17: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2월 7일(월)>

- 일본, 11월 외환보유고 (08:50)
- 중국, 11월 수출·수입·무역수지
- 중국, 11월 외환보유고
- 유로존, 12월 섹터스지수 (18:30)
- 미국, 11월 고용추이 (자정)

<8일(화)>

- 미국, 10월 소비자신용 (05:00)
- 일본, 12월 로이더단란 제조업지수 (08:00)
- 일본, 10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11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10월 경상수지 (08:50)
- 일본, 3분기 GDP 확정치 (08:50)
- 유로존, 3분기 GDP 수정치 (19:00)
- 미국, 11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미국, 3분기 노동비용 수정치 (22:30)

<9일(수)>

- 일본, 10월 기계류주문 (08:50)
- 중국, 11월 PPI·CPI (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0월 도매재고 수정치·도매판매 (자정)
- 캐나다, 캐나다은행 금리결정 발표 (자정)

<1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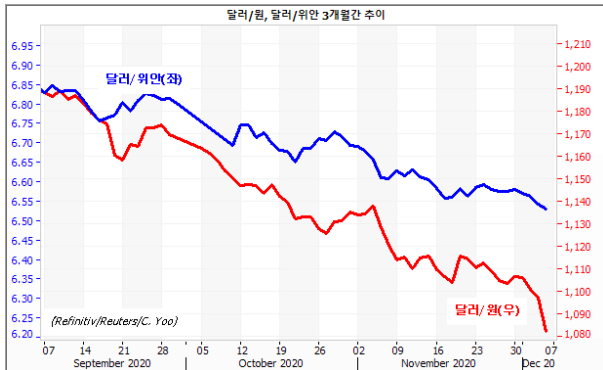
- 일본, 11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일본,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08:50)
- 미국, 11월 CPI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11일(금)>

- 미국, 11월 연방예산 (04:00)
- 영국, 영란은행 금융안정보고서·통화정책위원회 회의록 공개 (16:00)
- 미국, 11월 PPI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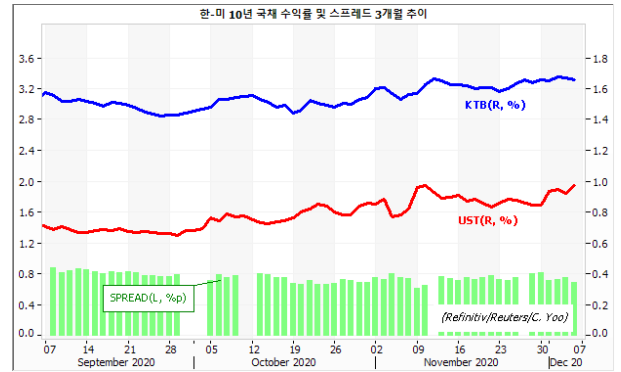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증시 여건을 살피며 추가 하락 여부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070-1097 원이다.
- 연말로 접어들면서 환율 하락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환율이 '빅 피겨'를 하향 이탈한 이후 대부분의 매수 주체가 뒤로 물러서다 보니 환율 하락 기울기는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
- 완전한 글로벌 달러 약세 속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과 조선사 수주 관련 대기 매물 등이 달러/원 상단을 짓누르지만, 당국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수세 정도가 하단을 받치다 보니 얇은 호가 속에서 환율은 매번 하락 변동성을 키우는 모양새다.
- 이에 덧붙여 역외 달러/위안마저 주요 지지선으로 인식되는 6.5 위안 하향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달러/원에 대한 하방 압력은 레벨 부담을 넘어 연일 작동 중이다.
- 다만 이번 주 원화는 주로 외인 증시 자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증시와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외인 자금 때문에 달러/원은 씬 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 일에 있을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 달러/원 환율 1080 원 선이 무너지면 기술적으로 1050 원 선 도달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연말 얇은 유동성 여건에서 수급 영향력이 한껏 확대된 만큼 환율의 일방적으로 하락 변동성을 키울 여지는 크지만, 당국 경계감을 배제할 수는 없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 움직임, 주 후반으로 예정된 내년 국채발행계획 발표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이번 달 국채 수급 재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주요국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에도 지난주 채권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달 말부터는 재차 약세 재료가 부각될 것이라는 부담 때문에 매수 탄력성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다.
- 현재 채권시장의 가장 큰 재료는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의 움직임이다. 지난주 미국 정가에서 경기 부양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부상했다. 1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부진은 오히려 경기 부양책 타결을 높일 재료로 부각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시장을 캐리하고 있다.
- 당장의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나 코로나 19 확산세에는 아예 눈을 감은 모습이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 달러/원 환율 하락과 코스피지수 상승이라는 에쿼티 밸리 패턴이 깨지지 않는 이상 채권시장이 크게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 영향으로 주초 금리 레인지 상단을 다시 한번 짚은 후 제한적 범위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칼럼)-한 해를 건너뛰고 2021 년을 맞이하다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주요 투자자들이 2021 년 장밋빛 시장 전망에 다소 지쳐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3 월 이후 내년 전망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2020 년을 사실상 건너뛰고 그 이후의 정책과 백신에 힘입은 반등을 점차 반영해 온 듯하다. 둘 다 지금까지의 전망에 부합하고 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 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수축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MSCI 세계주가 지수로 볼 때 글로벌 증시는 올해를 사상 최고치로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10% 이상의 상승률은 2019 년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이는 지난 10 년 중 6 년보다 여전히 나은 수준이며 11 월에는 코로나 19 백신 개발 진전 소식에 사상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대미문의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단순히 로이터의 내년 주식시장 전망이나 1 년 전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12 개월 전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말 S&P500 지수는 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제는 내년에 10%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JP 모간과 같은 일부 대형 은행들은 이보다 약 2 배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 년 11 월, 당시의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에 "2 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 미만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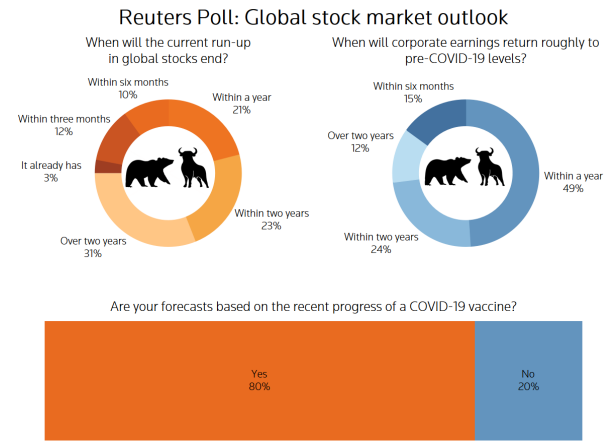
하지만 올해는 30% 이상이 현재의 강세장이 2 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주 발표

된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이 포지셔닝에 반영돼 주식 비중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피해 우려나 정책 지원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주식에 따른 여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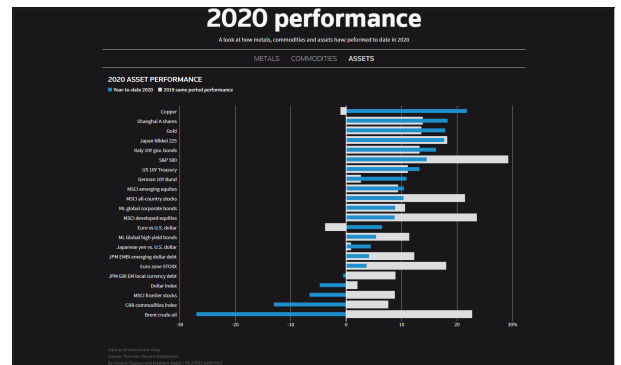
막대한 정부 부채, 여전히 높은 디플레이션 압력, 유류생산능력 지속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 부근으로 유지해야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은 후자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강세장은 잠시 올해 2 월과 8 월 사이 5 개월 간의 짧은 휴식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



Poll conducted Nov 12-24, 2020. 123 equity strategists responded. Source: Reuters Polls. Vivek Mishra, Murali Rathore and Indradip Ghosh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없던

피터 피츠제럴드 아비바인베스터 다중자산 수석 투자책임자는 금주 로이터 투자 전망 서밋에서 "가계 소득이 실제로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경기 침체는 평생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적인 사건, 대규모 지원, 부채, 금리 전망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리스크 자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옵션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이터에 "부채가 없는 투자자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그 누구도 팬데믹, 외출제한 조치, 경제 침체, 그리고 3월 23일까지 27 거래일 동안 MSCI 글로벌 지수의 35%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 은행·에너지주 같은 많은 업종들, 그리고 로이터가 조사하는 17 개국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이 2020년을 약세로 마감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주식에만 좁게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한 글로벌 벤치마크지수를 따랐다면, 포트폴리오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전망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백신이 등장하고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기저가 되는 모든 사안들은 이미 여러 번 철저히 논의됐다. 이는 이미 시장에 완전히 반영됐음을 시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들은 거의 없다.

일부 상반된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계 저축, 통화 공급, 머니마켓펀드 관련 자료들은 여전히 아직 투자되지 않은 팬데믹 관련 현금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경기 회복, 백신 출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 외출제한 조치, 효과적이지 못한 백신, 예상치 못한 정치적 반전, 중앙은행 및 재정 정책의 지연, 인플레이션 우려 등 아직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팬데믹 동안 좋은 성적을 낸 기술 및 제약주에서 약세를 보인 가치주, 그리고 에너지, 은행, 여행, 레저 등 경기순환주로의 소위 '정상화 거래'에 따른 진지

한 투자 재편성은 많은 액티브 펀드매니저들에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된다고 해도, 아무도 이렇게 '건너편 해'가 남긴 거대한 유산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국채 및 회사채 금리의 가장 광범위한 척도인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멀티버스 수익률은 1%로 낮아진 적이 없었다.

리걸&제너럴애셋매니지먼트의 손자 라우드 최고투자책임자는 로이터 서밋에서 "주식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저는 당신이 선호하는 자산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점)-한은, 통안채 3년물 신설 고심..최대 걸림돌은 '시장의 이해'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의 2년물 국고채 신설에 대응해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 3년물 신규 발행 카드를 테이블에 올리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국고채와의 상생, 차환 발행의 원활성 등을 고려할 때 3년물을 통안채의 신규 만기로 결정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다.

▲통안채 신규 만기 발행, '2년물 국채 발행액 확인이 먼저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의 국고채 2년물 발행에 따른 통안채 수요 구축 가능성을 묻는 말에 "RP, 통안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필요시엔 통안채의 새로운 만기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오는 24일 예정된 기재부의 내년 국채 발행 계획 발표를 지켜본 후 통안채 신규발행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통안채 발행 잔액이 매년 5조원-6조원씩 자연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RP 등 다른 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도를 늘릴 경우 내년 통안채 발행을 8조원-9조원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선 기재부의 내년 국고채 2년물 발행 규모가 통안채 발행 감소액 범위 안이라면 신규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낮아지게 된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대로 내년에 국고채 2년물이 매월 1조원씩, 비경쟁 입찰을 포함해 대략 15조원 규모로 발행될 경우 통안채 수요의 구축은 불가피하다.

한은 입장에서선 내년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국고채 2년물 발행 추이도 감안해야 한다.

기재부가 내년 국고채 2년물 발행물량을 최소 규모로 조정한다고 해도 후년까지 한은의 사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어떤 상황이 닥치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안채 신규 만기 발행과 관련한 근거규정 등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는 판단이다.

▲'통안채 3년물 발행이 가장 유리' 판단

통안채 신규 발행 만기와 관련해선 3년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서 제기된 1.5년, 2.5년 통안채 발행의 경우 지속가능한 수요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통안채 발행 잔액 160조원 중 2년물이 120조에 달하는 건 그만큼 시장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은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182일물과 1년물의 수요도 제한적이다. 182일물의 경우 유동성이 떨어져 91일물보다 오히려 선호가 낮다.

통안채 1년물의 경우 기재부의 국고채 2년물 발행 발표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국고채 1년물과 통안채 1년물 스프레드는 최근 14bp 수준까지 크게 확대됐다.

1.5년물이나 2.5년물 신규 발행 역시 시장 수요에 대한 부담이 걸린다. 통안채 1.5년물의 경우 한은이 2011년 5월을 마지막으로 발행을 중단한 바 있다. 시장 수요가 그만큼 적었다는 이야기다. 시장참가자 입장에서선 1.5년, 2.5년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유동성이 있는 2년물, 3년물을 매입하는 게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에서 많이 사주면 우리도 짧은 걸로 발행하면 좋은데, 단기물 수요가 적다 보니 그

만큼 선호가 낮다"며 "시장 수요가 없었던 1.5년물은 2011년 5월에 정례발행과 함께 종목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6개월이나 2년이나 만기에 큰 차이 없는데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2년 선호가 맞을 것 같고 발행량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정적인 유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중간에 팔 걸 생각하면 약간 금리가 낮게 형성돼도 만기가 길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는 게 시장"이라고 말했다.

4년물, 7년물 등 기존 발행 만기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배제됐다.

그렇다면 한은의 선택은 기재부의 국고채 발행 라인업에 포함된 3년, 5년, 10년물이다. 다만 5년, 10년 만기는 시장의 듀레이션 부담을 줄이겠다고 국고채 2년물 발행을 결정한 기재부의 결정에 크게 배치되는 만큼 한은 집행부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채권시장 이해 구하는 게 관건..발표 방식도 고민

내년에 기재부가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면 통안채 2년물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고채 금리에도 다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통안채 발행량 중 일부분을 3년물로 분산시키면 수익률 곡선의 왜곡 없이 국고채와 통안채의 공생이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이다. 시장 참가자들이 통안채 3년물 발행을 '기재부와 한은의 힘겨루기'로 받아들일 경우 가뜰이나 국고채 물량 소화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심리를 짓누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통안채 3년물 발행을 결정한다고 해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 역시 한은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무슨 결정을 내리든 통안채와 국고채가 일정 부분 경합 관계가 되지 않을 방법은 없다"며 "다만 시장과 어떻게 소통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는 하되 우리가 통안채 신규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국고채 2년물 발행을 본 후 특정

시점에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며 "근거규정만 일단 만들어놓고 시행은 나중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점)-빅피겨 넘어 1000 원 향하는 달러/원의 하락 행진..배경과 전망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 3개월간 하락 일변도 흐름을 보인 끝에 달러/원 환율이 2년 반 만에 1100 원 벽을 무너뜨렸다.

거듭된 경고에 이어 고강도 개입까지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환 당국의 거센 방어 노력에도 환율은 3일 1098 원대까지 하락해 2018년 6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100 원 벽을 깨고 1000 원을 향하게 됐다.

지난 9월 초 1190 원대였던 환율은 이로써 약 3개월 만에 100 원이나 하락했다.

▲ 원화에 무슨 일이?

원화는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충격에 심한 몸살을 앓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연상시킬 만한 위력으로 폭등하면서 환율은 1300 원을 넘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에 따라 풀린 풍부한 달러 유동성과 달러 약세 기조가 마련되자 상대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코로나 방역 성과와 경제 펀더멘털이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4분기 들어 원화는 약 5.5% 절상돼 달러지수의 2%대 하락뿐만 아니라 3%대 위안화 절상마저 크게 넘어섰다.

중·장기적인 약세 전망이 굳어진 달러를 보유할 유인은 크게 약해졌고, 수출 회복으로 달러 공급이 느는 가운데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까지 몰리자 달러/원 환율 하락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4월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9월 87억달러 흑자로 2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연초 이후 줄곧 순매도를 유지해 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11월 들어 5조

원어치의 주식을 무섭게 사들여 월간 기준 2013년 9월 이후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 그 덕분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1일 신흥시장에 대한 11월 외국인 투자 유입액이 76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내 조선사들의 해외 수주 호조까지 겹치면서 외환시장 수급 구도는 확연히 달러 공급 우위가 됐다. 지난 2개월간 국내 조선사들의 해외 수주 규모는 공식 발표된 것만 7조원에 육박한다.

원화를 둘러싼 펀더멘털-수급-심리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원화 절상 흐름은 거침없이 진행됐다.

▲ 다음 시나리오는?

내년 글로벌 회복 전망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도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11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향후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을 전망치를 0.2%p씩 상향 조정했다.

주요 해외 기관들의 원화에 대한 시각 역시 긍정적이다.

씨티은행은 11월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관계 불확실성 완화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낮출 것이라면서 원화와 대만달러의 추가 강세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들 통화의 강세는 그간 구조적인 약세 전망에 기대포지셔닝을 해왔던 '리얼 머니'들의 포지션을 조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달러/원 환율 전망치를 올해 말 1098 원, 내년 1분기 말 1086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도 11월 보고서에서 기술 중심의 무역 구조를 가진 한국과 대만 경제의 가파른 회복을 예상하면서 달러/원 12개월 전망치를 1070 원으로 제시했다.

한편 역대 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도 비슷하다. '빅 피겨'를 밀고 내려온 달러/원 환율이 일차적으로 1080

원, 그리고 이를 넘어 1050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긍정적인 반도체 업황을 바탕으로 외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 이유를 딱히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기술적으로는 1050 원까지는 크게 걸리는 레벨이 없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팔라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백신 상용화 기대에도 국내 코로나 19 확산 변수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은행 외환 딜러는 "달러/원 1100 원이 깨졌다 하더라도 추후 속도가 가팔라질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코로나 19 백신 기대만 반영되면서 이에 대한 재료 영향력이 크지 않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코로나 여건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면 원화에 대한 시각은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칼럼)-전방위 압박 가하는 외환당국, 독일까 실일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 두 달 동안 가파르게 하락한 달러/원 환율이 2년 반 만에 1000 원대 시대를 열었다.

여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도 백신 상용화 기대가 내년 경제 회복 전망에 힘을 실으면서 국내외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이고 달러는 2년 반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효과적인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 대책 면에서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절상 압력은 빠르게 커졌다. 이에 4분기 중 원화 절상률은 6%를 넘어섰다.

올해 11개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390 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8.9 억달러를 웃돌았다. 이에

더해 전달에만 5 조원이 몰린 외인 주식 자금(유가증권시장 기준)에다 6 조원 상당의 국내 조선사 수출 등 달러 공급 요인까지 가세하며 원화는 더욱 강세 압력에 내몰렸다.

그 결과 3%대에 머문 달러지수 하락률과 위안화 절상률에 비해 원화 반응폭은 2 배 이상 컸다.

이처럼 원화가 상대적으로 절상폭이 확대되자 외환당국은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시장 쓸림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공격적인 달러 매수 개입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의 개입 강도는 외환보유액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 두 달 사이 외환보유액은 약 160 억달러 급증했다. 모두 달러 매수 개입은 아니겠지만, 당국의 경고 양상과 달러들 말을 종합하면 상당한 규모의 달러 매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에 (환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게 돼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맥락에서 외환 당국의 환율 쓸림에 대한 시장 대응은 필수불가결하다.

외환 당국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되, 급변동시 완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율 하락 변동성을 막기 위한 외환 당국의 시장 접근법에 대한 아쉬움은 적지 않다.

당국의 잦은 개입성 발언이 환율 변동성을 더욱 부추겼는가 하면 환율 하락에 수반되는 달러 수급에 대한 당국의 해석은 시장과 너무나 큰 괴리를 보였다.

당국은 또 증권사의 마(MAR) 거래로 인한 환율 하락을 경고하면서 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매물이 스팟 시장으로 소화돼 환율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도 나타났다.

아울러 당국이 여러 측면에서 시장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시장 유동성은 계속 말라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외환 당국의 개입 효과는 빠르게 퇴색했고, 실수급에 따른 거친 흐름 속에서 환율의 낙폭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또,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환율을 관리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준 탓에 수급 주체들의 물량이 미처 소화되지 못한 데 대한 우려도 크다.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서 환율을 바라보는 외환 당국의 시각은 다를 수 있고, 환율 대응법도 다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겨지는 외환 당국에 맞설 시장 주체는 없다. 그만큼 외환 당국의 역할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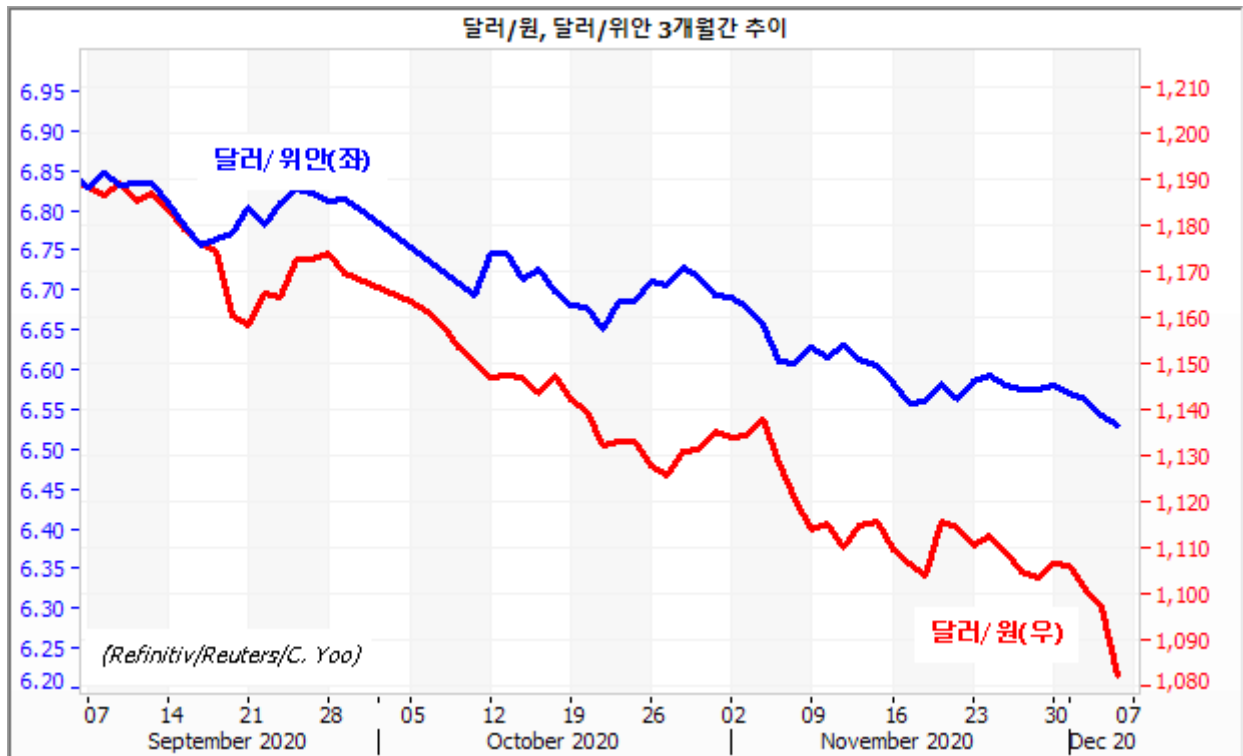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시장 참가자들은 연말이라는 시기적 영향을 제쳐두고라도 외환 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시장 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는 듯하다.

살아 움직이는 외환시장에서 당국의 모니터링 압박이 세밀하고 미시적으로 확대될수록 시장은 경직되고, 그 역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환율이 1000 원 대로 하락했지만 이후 흐름이 더 중요진 시점이다. 보다 유연한 외환 당국의 시장 접근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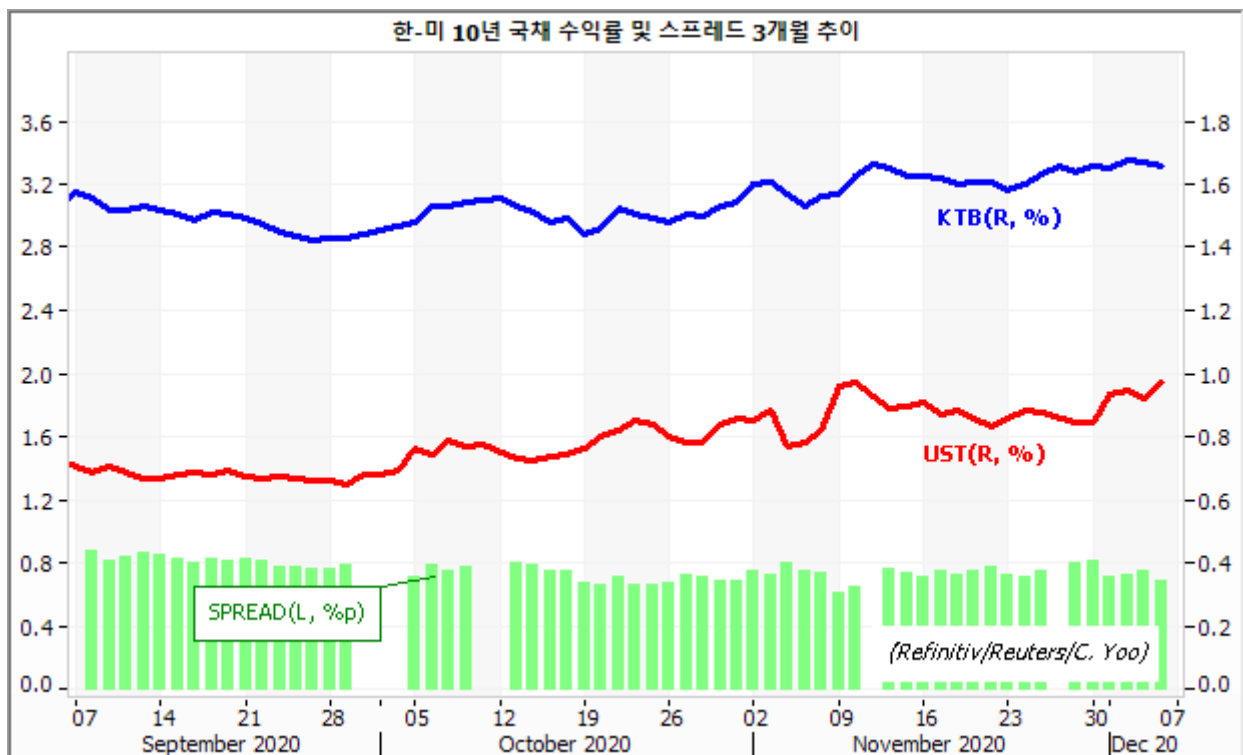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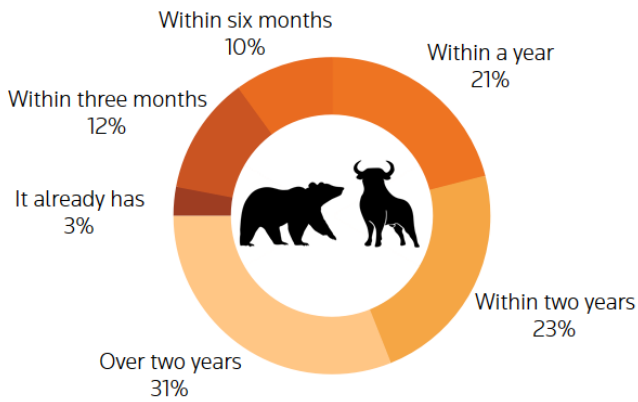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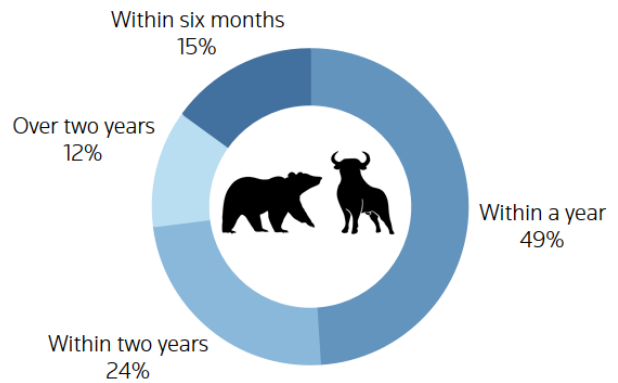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Reuters Poll: Global stock market outlook

When will the current run-up in global stocks end?



When will corporate earnings return roughly to pre-COVID-19 levels?



Are your forecasts based on the recent progress of a COVID-19 vaccine?



Poll conducted Nov 12-24, 2020. 123 equity strategists responded.
 Source: Reuters Polls
 Vivek Mishra, Mumal Rathore and Indradip Ghosh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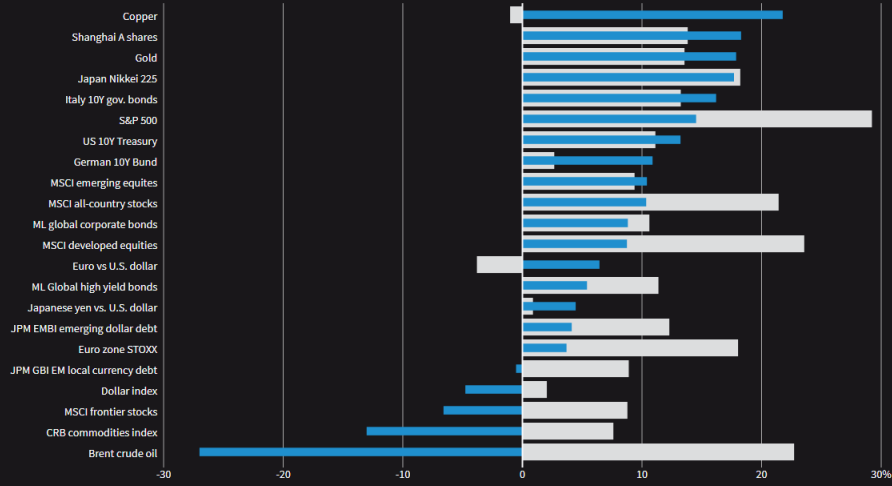
2020 performance

A look at how metals, commodities and assets have performed to date in 2020

METALS COMMODITIES ASSETS

2020 ASSET PERFORMANCE

■ Year-to-date 2020 ■ 2019 same period performance



Data as of most recent close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By Vincent Plasseur and Matthew Weber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